

# 자연에서 찾은 이상향, 화폭에 풀어내다

내달 1일부터 의재미술관 두 번째 소장품전 '마음으로 그린 산수'展

의재 동양산수화 등 30점 선배...우현 최덕인 개인전도

동양의 산수화는 흔히 이상경(理想景)이라 한다. 눈 앞에 펼쳐지는 풍광을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산수'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다. 머물고 싶은 각자의 소우주(小宇宙)를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이다.

그림 속 산, 물, 동네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와 닮아 보이지만, 어느 곳과도 똑같지 않다. 오히려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집과 인물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전통화법의 두터운 숙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뤄낸 화가들은 웅장하고 변화무쌍하면서도 온갖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위대한 자연에 대한 흥미를 산수화로 표현했다.

이처럼 그림만의 소우주가 담긴 산수화를 통해 이상향을 떠올려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소장품전 '마음으로 그린 산수(山水)'를 개최한다.

지난 3월 개최된 화조화(花鳥畵)전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에 이은 두 번째 소장품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의재 허백련과 그의

제자들이 그린 산수화 작품 중 엄선된 30점이 모습을 드러낸다. 20세기 격변의 시기에 '남종문인화'라는 전통화법과 산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의재 허백련의 산수 작품과 근대식 교육을 받고 새 시대를 겪은 제자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허백련은 의재, 의재산인, 의도인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화법의 두터운 숙련을 바탕으로 그림에 대한 안목과 학문적 깊이를 더해 자신의 독자적 세계를 이뤘다. 이같은 허백련 예술정신의 진화를 음미하면서 의재의 진동생 목재 허행면의 개성적 면모와 요절한 후 천재성이 드러난 성관 허정두 등 제자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느껴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의재미술관 특별전시실에서는 의재 허백련의 만년 제자 중 한 명인 우현 최덕인(惠軒 崔德寅, 1944-)의 '사생·여정'전도 함께 열린다. 최덕인의 산수화와 화조화, 글씨 등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덕인은 부산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16세 때인 1959년 광주로 이주,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964년 국전 입선을



의재 허백련작 '풍년을 고대하며'

(의재미술관 제공)

시작으로 전남도전, 부산미전 등에서 10여 회에 걸쳐 입선과 특선을 했고, 성균관대 강사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최덕인은 전통 화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특히 발목의 효과를 살린 대담한 실경 산수화와 화조화를 주로 그린

다. 그의 산수화는 여행을 통한 실경의 사생으로 현장감 있는 풍경을 구사한다. 자연과 물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과 색채감을 통해 맑은 그림 세계를 견지하고 있으며 글씨에서도 자신만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최명진 기자

##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진강 2

노의영의 캔버스 이상향

섬진강 오백 삼십리 물줄기는 아름답기 그지 없다. 굽이굽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보노라면 저절로 그 풍경 속으로 풍당 빠져들고 만다. 섬진강은 5대강 중에서 가장 맑은 물이 흘러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개펄의 중심부에 있는 한강을 비롯해 금강, 낙동강과 달리 국토의 변두리에 숨어 있어 한없이 여러 보인다. 그리고 본래의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어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탓에 그 가치가 더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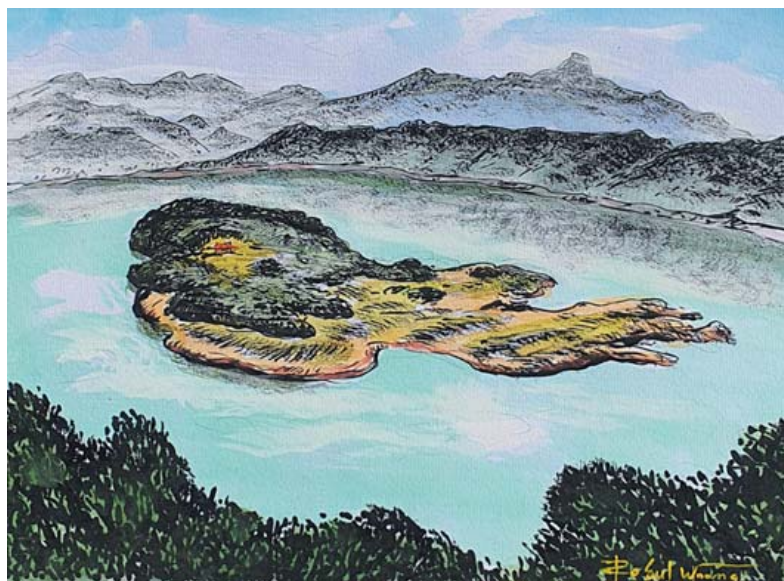
언제나 눈웃음 짓고 달려오는 어린 손녀를 연상케 한다. 다른 강에 비해 길지도 않은 싹뿔줄 같은 물줄이 끊이지 않고 모여 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물에는 은어가 뛰어들고 강줄기마다 흰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물빛과 햇



빛을 받아 빛나는 섬진강은 걸어 보면 그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

그 섬진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든다. 혹여 뱀을 막을까 노심초사하다. 옥정호의 전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국시봉 전망대에 오른다. 호수 둘레길을 따라 국시봉으로 가는 길은 구불 구불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산세가 높은 탓인지 다른 곳과 달리 나뭇가지 이슬방울이 아름답다. 옥정호 둘레길은 아름다운 길 10선 중의 하나다.

옥정호의 봉어섬을 촬영하기 위해 사시사철 사진작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전망대에 오르는 길은 가파르다. 목재 데크로 계단을 만들



'옥정호 봉어섬'

어졌으나 경사가 급한 탓인지 함께 전망대 길에 나선 아내의 숨소리가 커져만 간다. 드디어 전망대다. 넓은 호수 가운데 봉어섬이 아름답다. 호수에서 고립되어 해염을 치는 봉어 모양을 한 봉어섬이 신기하다. 한편으로 그 모양이 너무 애처롭다. 외롭

게 느껴져서다. 봉어섬의 위치에 작은 집 한 채가 서있다. 묘한 기분이 든다. 찬찬히 보니 집 앞에 농토가 보인다.

내일은 김용택 시인의 집 앞을 지나갈 거다. 얼른 가고 싶다. <섬진강에서 화가 노의영>

## 다양한 색채로 가뉘진 에너지

정정하 '빛에 대한 연구'展...9월4일까지 예술공간집

색과 빛에 대한 다양한 변주를 연구해 온 정정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9월4일까지 동구 장동 예술공간집에서 열리는 '빛에 대한 연구'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타이틀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중 '빛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빛에 대한 연구'는 작가를 이루는 수많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가 갖고 있는 열정적 에너지는 수많은 색의 조각들로 표현된다. 다양한 색채들은 '레진'이라는 안료 속에 담겨 화석 같이 가뉘진다.

이번 전시의 대부분 작품들은 에너지를 수집해 가두는 방법에 대한 작가의 연구과정을 보여준다. 색과 안료들의 여러 조합,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지점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작품들이다.

빛을 가두는 주재료로 사용되는 에폭시 레진은 페인트 안료로, 빠르게 굳는 물성이 특징이다.

두께감을 형성하며 흘러가는 재료의 특성은 빛을 흘러보내거나 농축시켜 묘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물성의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화면에 뒤섞이며 흐린 듯 선명한 듯 다양한 감정을 표출해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 에너지를 확인하고 정리해나가기를 반복한다.

평소 페인트 매장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의 색을 찾아주던 작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빛에 대한 연구' 안에서 오롯이 자기만의 색을 찾았다. /최명진 기자



정정하 작 'A.R.6'

(예술공간집 제공)

다양한 크기의 색 화면들이 조합되기도 하고, 레진의 물성을 활용해 대형 작품을 제작하는 등 그간 해오던 작업들의 연장선에서 확장을 모색해가는 과정 또한 볼 수 있다.

작가는 "나의 열정 안에서 녹아나온 다양한 색채와 마주하며 많은 관람객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정하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지난해 제 21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21' 선정, 무안군오송

우미술관 초대전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 이후로도 9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 라운지'일상다반사'전, 11월 대안공간 산수씨리에서 '아름다운 두려움'전에 참여한다. /최명진 기자

## '한말 호남의병' 주제 콜로키움

한국학호남진흥원, 1일 순천문화재단·2일 전남도립미술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한말 호남의병'이라는 주제로 순천과 광양에서 호남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의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은 9월1일 오후 2시 순천문화재단 다목적실, 2일 오후 2시 전남도립미술관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1일 진행되는 콜로키움에는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자유를 위한 투쟁-한말 호남의병과 순천'이라는 주제로 한말 호남의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남한폭도 대토

별 작전, 한말 순천 의병 등에 대해 강연한다. 좌장으로는 김현진 순천대 학

술연구교수가 참여한다.

2일 콜로키움에는 이은철 광양지역사연구회 마로회양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호남의 한말 의병과 광양 백운산의 병부대'라는 주제로 광양 관련 항일의병 독립유공자와 황병학 의병장에 대해 강연한다.

좌장은 '함께하는 남도학' 박영실 선생이 맡는다.

이번 콜로키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방치된 묘지 70%(추정)



매장 → 매장  
매장 → 봉안  
매장 → 수목장

· 오랜 경험과 노하우!  
· 탁월한 기술력과 정직한 가격!  
· 광주·전남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이장고민 해결!

묘지이장/관리  
전문업체

"날짜 택일에서 화장장 예약, 안치까지,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여름철 비수기 특별할인!

광주묘업

☎ 010-8674-1037